

투데이 칼럼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모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아 적도 하얀 눈이 쌓인 산간 지방도 있지만,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절기상의 우수(雨水)가 지나갔다.

우수(雨水)는 24절기 중의 하나로 눈이 비가 되어 내리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는 뜻으로 날씨가 많이 풀려 봄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트는 시기이다. 이미 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어느해 보다 추웠던 날씨 탓도 있지만 제천과 밀양에서 벌어진 화재 참사는 더욱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우리 장수군도 추운 날씨 탓에 크고 작은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운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불을 지핀 아궁이와 화목보일러에서 발화된 화재라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한다.



장경정
장수군 안전재난과장

장수군은 올해부터 안전취약계층 1,500가구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또한, 작동법이 익숙치 않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화기 작동요령을 홍보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안전 전담팀을 가동하여 화목보일러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옛 선조들이 우수가 되면 농사일을

을 준비하듯 정부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겨우내 일어났던 시설물에 대하여 해빙기를 맞이하여 일제 점검하고 절개지, 급경사지 등 재난위험 요소에 대한 예찰활동을 하며, 열화관, 공인장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재난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군민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가

신문고 앱을 통하여 생활속의 재난요인을 신고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렸을 때를 회상해보면 농사준비는 논두렁을 태우는 일부터 시작했다. 논두렁에 숨어있는 병해충들을 없애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아무리 정성들여 농작물을 키워도 병해충이 잡아 먹는다면 탈장 헛일 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회도 재난 위험요소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한 번의 재난으로도 풀이될 수 없는 참사가 될 것이 자명하다.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3월 31일까지 추진되는 '국가안전대진단'에 임하여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재난·재해 위험요소를 싸그리 박멸하길 기원한다.

독자제언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가정폭력 Zero에 앞장

가정은 좁은 의미에서는 주로 가족이 살아가는 공간적 장소를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의 가정은 인간관계에 초점이 주어지는 가족, 생활과 거주 장소에 초점이 주어지는 집, 공동의 소득에 근거한 생산 소비 활동의 단위인 가계, 의식주를 비롯한 일련의 가족자원 관리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정의 핵심은 가족이며 가정의 목표는 가족구성원의 행복과 복지 향상이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능성과 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정의 기능은 크게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가정 내 기능과 대 사회적 기능으로 구분된다.

가정 내 기능으로는 성과 생산, 양육 및 교육, 보호, 휴식, 생산과 소비, 오락, 종교의 기능 등이 있으며 대 사회적 기능으로는 합법적인 성적 통제, 생식을 통한 사회의 유지·존속, 노동력 제공과 소비생활을 통한 경제적 기능, 자녀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에 적합한 구성원 제공 등의 기능이 있다.

따라서 가정은 개개인이 생활하고

보호받는 터전인 동시에 한 사회를 유지·존속시키는 최소의 단위로서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중간 고리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맞벌이·기러기 부부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과거에 비해 가족 간의 함께 있는 시간과 나누는 대화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가족 간의 소통의 부재가 가정폭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학교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통계 결과도 있다.

이제 더 이상 가정폭력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 주변의 이웃에서는 큰 소리가 아닌 웃음의 소리가 여기저기 퍼져 나옴에 잘못된 가정폭력은 이제 가정 내의 문제만이 아니다.

범죄임을 명심해야 하며 가족과의 대화를 부드럽게 유도하고, 화가 날 때는 그 순간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가정폭력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후 현상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하다.

공평옹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와이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비보호좌회전 정확히 알고 운전해야

최근 직진 위주의 신호체계가 늘면서 비보호 좌회전도 늘고 있다.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서 불류비용도 줄이고 조금만 마음에 신호 위반하는 사례도 줄여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은 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인 만큼 운전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주변 도로상황을 잘 살펴서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초보 운전자는 긴장하거나 주저하면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어르신 운전자들은 신호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신호등임에도 좌회전 하는 경우가 있다.

정확한 비보호 좌회전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첫번째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앞 좌회전이 허용된 차선에 멈추고 전방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면 마주 오는 직진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두번째 마주 오는 직진차량이 있다면 모두 지날 때까지 기다린다.

세번째 전방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녹색 신호를 확인하며 좌회전을 시도한다.

네번째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는 마주 오는 차량이 없다고 해도 절대 좌회전을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며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운전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게 정전상전파출소경위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소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설

비틀거리는 지역 경제 내버려둘 것인가

지금 지역경제가 비틀거리고 있다. 군산은 군산대로, 남원은 남원대로 그로기 상태로 물리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가동 중단이 군산 경제에 대한 스트레이트였다면 GM의 폐쇄는 어퍼컷이 아닐 수 없다. 군산을 상대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이유이다. 말로는 전북의 발전이 전국 경제 발전의 이정표라고 하면서도 대응하는 걸 보면 영만 판이다. 남원의 서남대 폐쇄 사태도 그렇다. 서남대 폐쇄 사태로 남원 경제가 위정한다는 소식이 들린 지 오래됐지만 어떻게 회생시켜볼려는 노력이 미미했다.

이번 군산 GM의 폐쇄와 남원 서남대 폐쇄는 전북 경제에 대한 강타와 연타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간 힘을 써야했는데 발을 동동 거리며 지켜만 보고 있을 뿐, 대책도 강구도 없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한심하다. 사실이지 지역 경제가 흔들려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들리느니 안 좋은 소리뿐, 도대체 희망적인 소식이 없으니 여간 걱정이 아니다. 전북도는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폐쇄 도미노 사태를 두고 도민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한다. 그

렇지 않아도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이때, 일자리가 한꺼번에 줄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전북 지역이 본래 일자리 창출도 안되고 고용도 매우 불안정한 지역이었는데 전북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던 군산 경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말로만 전북의 자존을 말하고, 말로만 전북의 계류 찾기를 주장해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전북도는 자급의 시대와 관련된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GM 폐쇄에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을 리 없다며 군산시민들은 전북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서남대 폐쇄 문제도 그렇다. 남원 시민들은 불만의 정서를 토로한 지 오래되었다. 인종은 여든 국면을 회피하기 위한 영양가 없는 변명과 제스처는 생략해야 한다. 전북도는 전북경제의 비극을 다시 상기해야겠다. 수년 전의 일이지 만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한 지역도 전국에서 전북이 유일했고 경제성장률 0%를 기록한 곳도 전북이 유일했다. 전북도는 이제 몸을 던져야한다. 마구 비틀거리는 지역 경제를 제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다.

청년층 붙잡아줄 일자리 대책 절실하다

청년층을 붙잡아줄 대책이 절실하다. 도내 젊은이의 40%가 전북에 아무 미래가 없다는 게 또다시 확인되었다. 기회가 주어진다던 이 지역을 떠나고 싶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은 친구들을 도내의 미취업 젊은이들은 부러워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일자리를 마련했다고 자못 뽐내는 듯이 말하지 말고 일자리 늘리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만 되겠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분발해야 한다. 지역 경제가 늘 빨간불이라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데 구태의연한 대책으로는 그 약발을 기대할 수가 없다. 미취업률 전국 1위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이다. 전북도는 이 부끄러운 기록을 과연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전북도가 전국 1위의 실업률이라는 성적표 앞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전북도는 청년고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말이지 이례서는 곤란하다. 먼저 출산수행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고

용 열기를 달구어야 한다.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고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겠다. 정규 일자리가 기대치보다 못했는데 비정규 일자리마저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관한 개 아니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일자리 마련 약속의 실천을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므로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주머니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겠다. 얼마 일지나 시간제 일자리에 매달려 고달파하는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결혼이나 인생 설계를 말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와 각 시군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침은 그럴 만도 시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관건이다.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상경하는 세월이 그 얼마나 계속돼야 하는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관찮은 일자리 창출에 열과 성을 다해야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